



농촌관광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가족유대감의 관계*

- PLS-SEM 분석 활용 -

Effects of Rural Experience Activities on Self-Esteem and the Formation of Family Ties

이 상 훈** · 최 성 준***

Lee, Sang-Hoon · Choi, Sung-Jun

요약 : 이 연구는 농촌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현 시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대안마련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농촌체험활동은 농촌문화체험, 일탈체험, 관계체험으로 구분하였고,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은 1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양평군 수미마을로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200부를 배포하여 총 192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와 잠재요인간의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여 예측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PLS-SEM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농촌관광객의 농촌체험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관계체험(H_3 , $\beta = .292$, $p = .001$)은 농촌문화체험(H_1 , $\beta = .251$, $p = .025$)과 일탈체험(H_2 , $\beta = .209$, $p = .030$)보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농촌체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가족유대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농촌관광, 농촌체험,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 PLS-SEM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ural experience activities, self-esteem, and family ties to create alternativ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related to family issues that are emerging in society today. Rural experience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rural culture, deviation, and relationship, while self-dimension and family ties were composed of one factor. The research site was selected as Sumi village in Yangpyeong-gun, and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hrough a survey to utilize a total of 192 samples as research materials.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LS-SEM, which minimizes the error of measurement variables and the error of prediction between potential factors and maximizes the predictive power. The results showed that rural tourists' experienc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elf-esteem. Of these, it was found that having a relationship experience played a greater role in creating self-esteem than having experienced a rural culture and a deviation. Self-esteem created by rural experience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family ties.

Key words : Rural tourism, Rural experience activity, Self-esteem, Family ties, PLS-SEM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4028)

** 경기대학교 관광융합연구소 연구교수. e-mail: shoon@kgu.ac.kr

***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sjchoi@bullslanld.kr

I. 서 론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과거 불균형 발전전략과 압축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농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농촌관광을 제시하고 있다(이상훈·류시영, 2016, p. 74). 농촌관광은 농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생활양식과 농촌성,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이다(고동완, 2009, p. 418). 이러한 농촌관광은 2000년대 중반이후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농촌관광 참여자가 대부분 가족단위로 알려져 있다(유동숙·홍경완, 2017; 2018).

가족은 사회적 관계의 기본적인 단위이자 관계의 출발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이며 친밀한 집단인 가족관계는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 긍정적인 가족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강선경, 2011, p. 111). 그러나 고도로 분화된 오늘날의 가족은 정상가족¹⁾ 내에서도 세대 간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단절, 가족가치관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구조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박안숙, 2017, p. 540). 더욱이 갈등적 양상에 놓여있는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유하나·한예을·오혜미·박미정, 2015). 또한 우울감은 자살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데(김윤정·강현정, 2014),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론해보면 원만한 집단의 가족관계의 파생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과 갈등적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중

요하다.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류시영·장방훈, 2012; Shary & Iso-Ahola, 1989;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3), 가족관계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신충식·박정열, 2013; 양재혁·김경렬, 2017; 홍성화, 2003). 농촌관광이 여가활동의 한 범주라는 점을 전제했을 때 농촌관광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가족관계 향상은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 가능하다. 더욱이 농촌관광 참여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 비율이 높다(유동숙·홍경완, 2017; 2018)는 점에서 가족단위 농촌관광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의미가 있다.

농촌관광은 일상 생활권에서 수행 가능한 여가활동과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크게 반영되어 있어 체험활동 역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관광 방문객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도시지역 거주자 비율이 높아(이상훈·류시영, 2016) 지역주민보다 외지인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지역 거주자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활동을 자발적인 공간적 이동을 통해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여가활동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농촌관광 체험활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가족관계 개선에 일상 생활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가활동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농촌관광 체험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농촌체험과 만족의 인과관계(강성진·손호기, 2015; 이후석, 2015), 농촌체험 선택속성 및 선호도 연구(이상훈·류시영, 2016; 최해용·윤유식·박재덕, 2014), 농촌체험 후 마을에 대

1) 이광규(1990)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으로 결합된 사람과 이들이 출산한 자녀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며, 경제적 단위로서 생산과 소비의 단위이고 정서집단으로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 유형은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의 세 유형에 한정하였고 그 밖의 가족 유형은 비정상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한 태도변화 연구(김상현·엄서호, 2011; 양길승, 2014)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농촌체험이 개인적인 맥락에서 체험 당사자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지역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에 주로 논의되었고 농촌체험을 통한 참여집단 간 관계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미흡하다. 특히 농촌관광 참여자가 가족단위 방문객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 체험활동을 가족단위에 집중한 연구 역시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촌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방문객이 경험한 농촌관광 체험활동이 개인적 수준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적 수준에서 가족관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촌관광 체험활동

농촌관광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농촌관광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써 체험활동 선호도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농촌관광객의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시민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관심이 높았다. 이후 지역주민이 농촌관광을 진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박용순·고동완, 2018), 지역주민 애착심(김민지·남재철·이승우, 2017), 공동체 의식(정은성·강승희·진철웅, 2016)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촌관광으로 인한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의 변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관광 체험활동은 농촌의 자연자원,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풍경 등의 체험을 통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최해용·윤유식·박재덕, 2014, p. 187). 그렇기 때문에 방문객은 단순히 체험자체를 즐기는 것 외 농촌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해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 체험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급자(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체험활동은 다양한 양질의 농촌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방문객을 만족시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중요하다. 수요자(방문객)의 관점에서는 방문객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체험한 기회비용의 평가는 목적지에서 체험한 여러 활동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촌관광에서 체험활동은 중요하다.

체험은 객체와의 관계에서 인식적 의미를 가지는 경험과는 달리 신체적 활동 상태를 포함하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여가·관광분야에서 긍정적인 체험은 비교적 자발적인 활동으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고, 관광객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동우, 2009).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농촌관광체험은 '농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대상지의 유·무형적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얻는 지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농촌관광 체험의 구성영역은 신체적 활동영역과 인지, 정서상태 등 심리적 영역을 포함하여 구분되고 있다(김상현·엄서호, 2011; 이후석, 2015; 한숙영·엄서호, 2005).

선행연구에서는 농촌관광 체험과 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고동우(2009)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체험은 자발적인 특성과 긍정적인 심리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험과 만족 간의 관계는 정적인 인과관계로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체험과 만족 간 관계를 논의한 연구

의 체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인 영향력 검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체험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해현·박덕병·이민수(2006)는 활동형 관광이 관람형 관광에 비해 이문화적 요소 혹은 기억에 남을만한 현상에 대한 강도 높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나 자연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참여 활동을 통하여 지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수동적인 체험보다 상대적으로 능동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농촌체험이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송완구·박정화·조용현(2011)은 농촌관광 체험요인을 현대친절성, 휴양일탈, 지식교육, 사회교류, 관광편의로 구분하여 주민신뢰, 농산물신뢰, 지속적 교류의도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농촌체험이 주민, 농산물 신뢰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속적 교류의사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 체험은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관계에도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농촌관광 체험활동은 지역에 대한 태도변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상현·엄서호, 2011)도 진행된 바 있어 긍정적인 체험활동 경험은 대인적 관계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변화에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조록환·박장희(2007)는 아동의 농촌체험 유형을 농사체험, 농촌문화생활체험, 예체능체험, 농촌자연체험으로 구분하여 정서지능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농촌체험의 횟수가 많을수록 정서조절능력과 정서활용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체험이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에게 농촌체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는 박정아·김병국(2017), 육슬기(2015)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박정아·김병국(2017)은 농촌

관광체험 중 일상변화, 풍경경관, 대인교류 체험은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주체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육슬기(2015)는 농촌관광 체험활동을 장소체험, 관계체험, 탈일상체험으로 구분하여 치유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세 요인 모두 긍정적인 치유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농촌관광 체험 영역은 신체적, 심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체험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함양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농촌관광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을 존경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다(Rosenberg, 1979; 김표민·김윤화, 2013, p. 146 재인용). Chen (1997)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자신감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잘 수용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진다. 그리고 특정 과제에 대한 성취감이 높고,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Yoon & Kwon, 2015).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과 의존심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며(Reasoner & Dusa, 1991) 우울과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난다(Lee &

Kang, 2014; 전지경·이경아·서인덕 2016,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 가치인식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유소년, 청소년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가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고동우·이영숙·문상정, 2012, p. 2)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거의 모든 연구는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요소(스트레스, 비행, 대중매체 노출, 부모의 성취압력 등)들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은 교사의 학습몰입(강정원, 2017), 교수효능감(이성희, 2016)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함경애·이은혜·박명숙·천성문(2013)의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은 교사의 자기애적 성향(내현적, 외현적)이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현적 성향의 교사집단에서는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내현적 성향의 교사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평소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자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비록 개인적인 수준의 감정이지만, 보다 이를 향상시켰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가치상승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여가활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 밝혀진 바 있다. Tiggemann, et al. 1993)는 호주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도전적인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hary and Iso-Ahola(1989)은 여가활동의 유능감 체험은 자기존중감의 증진을 수반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고동우, 2009, p. 222 재인용). 즉, 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류시영·강방훈(2012)는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체험활동의 교육, 체험, 신체적 만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휴식적 만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휴식적 만족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왜 부(-)적인 인과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양희원·강현욱·안동수(2011)은 지루한 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즉,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는 여가활동은 오히려 자아존중감 형성에 배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경재·남궁선(2011)은 노인이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심리적 만족이 낮은 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체험은 체험을 수행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체험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체험활동,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 간 관계

가족이 처한 상황은 가족의 위기라는 평가가 내려질 만큼 사회문제가 되어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다(박안숙, 2017: 5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가정불화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끊이지 않게 접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위한 대안모색은 여전히 중요하다. 가족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은 현대 가족기능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옥경·김연수, 2007, p. 107). 이러한 현상은 과거 가족관계의 특성이 권위적인 지배적 관계가 강했지만 현대사회로 이동하면서 가족구성원 간 존중과 유대감 형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족관계가 여가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는 여가활동이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신충식·박정열(2013)에 의하면 캠핑참여여부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캠핑 참여자 집단이 미참여 집단보다 가족관계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재혁·김경렬(2017)은 중년기의 여가활동과 가족유대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교양교육여가, 가족친목여가, 놀이오락여가 활동이 가족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홍성화(2003)에 따르면 가족의 여가활동은 가족 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증진되어 가족의 안정성과 결속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증가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가족구성원 간 친밀감을 향상시켜, 생활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데(김명조, 1990), 여가활동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은 많은 선행연구

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족유대감과 유사개념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통해 전술한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신명주, 2015)'이다. 가족유대감은 '접촉빈도, 거주 근접성, 상호도움의 정도 등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객관적 유대관계와 가족간의 친밀감과 애정의 정도, 내재화된 규범 등 질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주관적 유대관계(이신숙·차용은, 2003)'로써 가족건강성의 개념을 상당히 포괄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 간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 간 관계추론이 일부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신명주, 2015; 양수미·유영주, 2003)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적인 인과관계(이지현·진수진·주현정·조연실, 2013)에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농촌관광 체험활동은 여가활동의 한 유형이지만 일반적인 여가활동 보다 가족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일상생활권에서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비교적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편리하지만 농촌체험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여 목적성이 분명한 체험이고, 체험 참여는 가족단위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관광 연구에서 동반자 유형이 가족집단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유동숙·홍경완, 2017; 2018)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계획으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며 자연

스럽게 가정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주영애·홍영윤, 2017, p. 636) 농촌체험은 가족유대감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설문지 구성

연구대상지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수미마을로 선정하였다. 양평수미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2007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 표창을 2회(2013년, 2016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농촌체험마을로 인정받고 있다. 수미마을은 계절(봄 딸기축제, 여름 메기수염축제, 가을 수확·김장축제, 겨울 빙어축제)에 적합한 주제를 토대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1년 내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연간 약 6만 7천여 명(2017년)이 방문하였다.

연구자료는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농촌체험을 진행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 까지 총 2달 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수미마을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전원 조사 시 응답의 동조(conformity)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가족 1인 조사를 원

칙으로 정하였다. 설문 조사원은 관광을 전공한 대학원생과 현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내용과 의도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조사원이 1:1 대응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총 192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고 회수율은 96%를 기록하였다. 설문지의 측정 척도는 농촌체험활동 9문항, 자아존중감 4문항, 가족유대감 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 중 유의미하게 확인된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농촌체험활동에 대한 설문문항 선정은 농촌체험(강하나·이진희, 2016; 김상현·엄서호, 2011; 이후석, 2015), 현장체험(한숙영·엄서호, 2005), 관광경험(육슬기, 2015)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한숙영·엄서호(2005)는 체험숙성을 '재미', '동반만족', '이탈',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김상현·엄서호(2011)는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로 구분하였다. 이후석(2015)은 '교육', '심미', '일탈', '엔터테인먼트'로 구성하였고, 육슬기(2015)는 '탈일상', '장소', '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강하나·이진희(2016)는 '농

〈표 1〉 연구대상지 운영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방문객 수	17,480	23,373	57,980	60,520	57,802	60,149	67,423	25.2
연매출	375,000	594,495	1,102,217	1,395,340	1,272,395	1,347,811	1,384,286	24.3

자료 : 수미마을(2018). 2017년 결산총회

주 : 수미마을 방문객 수와 연매출 집계는 2011년부터 진행되었음

촌체험활동', '농촌환경 및 서비스', '농촌휴양' 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농촌체험활동 주제의 선행연구는 '현장에서 경험영역(예, 재미,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경험영역(예, 일탈, 이탈 등)', '동반자, 타인과의 관계경험 영역(동반만족, 관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농촌체험활동 변수선정은 김상현·엄서호(2011)연구를 토대로 전술한 특성을 포괄하고 있는 육슬기(2015) 변수를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 연구를 토대로 단일영역(4개 변수)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논의(김표민·김윤희, 2013; 지명원·조태영,

2012)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여가·관광분야에서 수행된 지명원·조태영(2012) 연구를 토대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간 가족유대감 측정변수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매우 방대한 영역에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연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가 있었다(양옥경·김연수, 2007: 110). 양옥경·김연수(2007)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가족관계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유대감 변수는 양옥경·김연수(2007)의 연구를 토대로 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변수	출처
농촌 문화 체험	농촌문화1 이곳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것이 좋았다	김상현·엄서호(2011) 육슬기(2015)
	농촌문화2 이곳에서 향토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농촌문화3 이곳에서 농촌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농촌 체험 활동	일탈1 이곳을 방문해서 기분전환이 되었다	김상현·엄서호(2011) 육슬기(2015)
	일탈2 이곳을 방문해서 심신이 회복된 느낌이다	
	일탈3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일상의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계 체험	관계1 다른 여행객들과 어울려서 즐거웠다	김상현·엄서호(2011) 육슬기(2015)
	관계2 현지 주민들을 만나 농촌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관계3 이번 여행이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아존중감	자아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명원·조태영(2012) Rosenberg(1965)
	자아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자아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자아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가족유대감	가족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양옥경·김연수(2007)
	가족2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잘 이야기 한다	
	가족3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가족4 우리 가족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가족5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가족6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준다	
	가족7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가족8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 위하여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직업, 거주지를 추가하여 총 27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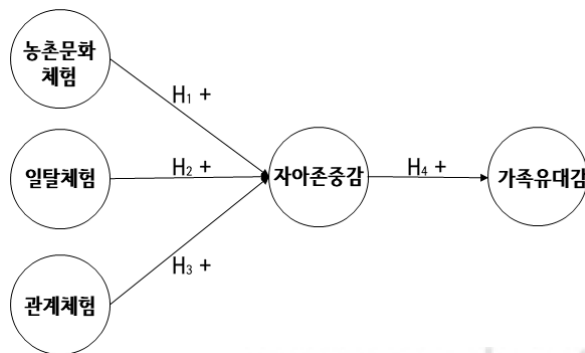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농촌관광객의 농촌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류시영·강방훈, 2012; Shary & Iso-Ahola, 1989)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연구(Chen, 1997)와 지역주민과 지속적 교류의사에도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송완구·박정화·조용현, 2011)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가족유대감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동 개념을 포함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신명주, 2015; 양순미·유영주, 2003)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적인 인과관계(자아존중감 → 가족건강성)에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이지현·진수진·주현정·조연실, 2013).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관광객의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통요인 구조방정식모형(covariance 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CB-SEM)과 부분최소최승 구조방정식모형(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SEM)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CB-SEM이다.

CB-SEM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이 표본의 공분산으로 얼마나 잘 추정되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동 방법은 비교적 많은 표본 수를 필요로 하고, 자료의 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과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측된 변수들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일 때, 혹은 표본의 수가 적거나,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모형의 복잡성으로 CB-SEM에서 해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용한 PLS-SEM이다(임현정·김종민, 2016: 456). PLS-SEM은 Wold (1974)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측정변수들의



연구가설

- H1 농촌문화체험은 농촌관광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2 일탈체험은 농촌관광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3 관계체험은 농촌관광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H4 농촌관광객의 자아존중감 인식은 가족유대감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www.kci.go.kr
 <그림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측정오차와 잠재요인간의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경로계수를 추정하므로 오차 최소화를 통한 예측력 극대화에 있다(Bacon, 1999). 그리고 반영지표(reflective model)와 조형지표(formative model)가 함께 있는 연구모델에서도 분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김계수, 2014, pp. 29-30) 최근 관광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Ali, Kim, Li & Cobanoglu, 2017). 이 연구는 PLS-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자료의 분포가 비정규성 분포를 보였다. 정규성 검정은 Lee, Foo, Leong and Ooi (2016)가 제안한 바와 같이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농촌체험활동 변수 9, 자아존중감 변수 4, 가족유대감 변수 8개 등 총 21개 변수에 대한 kolmogorov-smirnov normality test 결과 전 항목에서 $p=.000$ 값이 나타나 정규성 분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농촌관광분야에서 농촌체험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지만, 가족유대감 간의 관계연구는 비교적 드물게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농촌관광분야 선행연구를 토대로 농촌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을 통합하여 논의하는 것은 비교적 탐험적이기 때문에 PLS-SEM 연구가 적합하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연구자료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PLS-SEM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Soper(2015)는 PLS-SEM 연구를 위한 최소 자료크기를 170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유효표본 기준 192 부로써 PLS-SEM 분석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측정오차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여 예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PLS-SEM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PLS-SEM은 PLS 알고리즘과 붓스트래핑을 실행하여 분석조건을 설정하는데, 먼저 PLS 알고리즘에서 데이터 행렬 평균 0, 분산 1, 초기가중치 1.0, 최대 반복횟수 300,

정지기준 7, 가중방법 path를 적용하였고, 붓스트래핑에서 표본크기 500, 유의수준 .05, 검증 방법은 양측검증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모형의 PLS-SEM 분석은 SmartPLS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응답자의 연령은 30-40대의 비율이 전체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유소년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응답자의 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직업은 사무전문직이 전체의 40.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거주자의 비율이 48.7%를 차지하고, 서울특별시 33.3%로 나타나 서울, 경기권 거주자가 전체의 82.0%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평가

이 연구의 모형평가에서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을 점검하였고, 타당도는 집중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먼저 내적일관성은 CR(composite reliability) 값을 토대로 평가를 한다. 일반적으로 CR값이 .60-.70이면 수용 가능하고, 절대적인 수치로 .95이상은 동일항목으로 측정되었음을 의미하는데(Hair, Hult, Ringle & Sarstedt,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77	40.1	소득	100만원미만	6	3.2	
	여	115	59.9		100~200만원미만	11	5.9	
	전체	192	100.0		200~300만원미만	52	28.1	
연령	20대	21	10.9		300~400만원미만	38	20.5	
	30대	67	35.1		400~500만원미만	35	18.9	
	40대	84	44.1		500만원이상	43	23.2	
	50대	9	4.7		전체	185	100.0	
	60대이상	10	5.2		학력	고졸이하	48	26.2
	전체	191	100.0			대졸(전문대졸)	106	60.7
	직업	사무직/전문직	77			40.5	대학원재학이상	24
자영업		29	15.3	전체	183	100.0		
서비스직		22	11.6	거주지	서울	63	33.3	
주부		55	28.9		경기	92	48.7	
학생		7	3.7		기타	34	18.0	
전체		190	100.0		전체	189	100.0	

〈표 4〉 내적일관성 분석

구분	크롬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로우 지수 (rho A)	구성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농촌문화체험	0.799	0.803	0.882	0.713
일탈체험	0.867	0.873	0.919	0.790
관계체험	0.779	0.787	0.872	0.696
자아존중감	0.904	0.906	0.933	0.776
가족유대감	0.962	0.963	0.968	0.789

2017, p. 112) 가족유대감 개념만 .968로 나타나 내적일관성 확보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평가 중 집중타당도는 요인적재량과 분산추출지수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요인적재량의 크기가

모두 .75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수용가능한 기준치인 .700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50이상이면 수용가능한데(Hair, et al, 2017: p. 115), 5개 개념 모두 기준치를 확보하고 있어 집중타당성은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별타당도 평가는 cross-loading 값 점검

〈표 5〉 집중타당성 결과

구분	농촌문화체험	일탈체험	관계체험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	표준편차	T	VIF
농촌문화1	0.864	0.696	0.658	0.572	0.546	0.025	35.1***	2.92
농촌문화2	0.837	0.785	0.624	0.587	0.485	0.033	25.7***	3.97
농촌문화3	0.832	0.627	0.744	0.501	0.548	0.032	25.8***	4.89
일탈1	0.753	0.887	0.636	0.558	0.567	0.016	55.8***	4.00
일탈2	0.745	0.912	0.656	0.593	0.559	0.014	65.6***	4.02
일탈3	0.733	0.867	0.567	0.507	0.466	0.028	31.1***	4.50
관계1	0.587	0.522	0.759	0.504	0.496	0.055	13.7***	4.74
관계2	0.702	0.569	0.861	0.502	0.510	0.041	21.2***	4.67
관계3	0.697	0.650	0.877	0.584	0.557	0.017	50.6***	1.34
자아1	0.533	0.548	0.500	0.868	0.655	0.027	32.4***	2.04
자아2	0.583	0.539	0.578	0.886	0.718	0.017	51.1***	2.02
자아3	0.571	0.527	0.575	0.887	0.760	0.022	41.1***	1.85
자아4	0.629	0.583	0.591	0.883	0.721	0.019	45.7***	1.59
가족1	0.474	0.429	0.461	0.678	0.818	0.036	22.5***	1.76
가족2	0.580	0.575	0.553	0.773	0.881	0.021	42.0***	2.23
가족3	0.602	0.560	0.608	0.768	0.914	0.013	72.1***	2.55
가족4	0.550	0.528	0.550	0.679	0.882	0.023	38.4***	2.12
가족5	0.522	0.507	0.525	0.676	0.891	0.021	42.6***	2.84
가족6	0.550	0.522	0.553	0.684	0.900	0.019	48.4***	3.03
가족7	0.548	0.519	0.594	0.747	0.910	0.019	48.8***	2.93
가족8	0.582	0.606	0.593	0.743	0.905	0.017	52.7***	2.84

주 : ***p < 0.001, **p < 0.01, *p < 0.05

〈표 6〉 판별타당성 결과(fornell-larcker criterion, 1981)

구분	농촌문화체험	일탈체험	관계체험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
농촌문화체험	0.844				
일탈체험	0.836	0.889			
관계체험	0.795	0.699	0.834		
자아존중감	0.658	0.624	0.638	0.881	
가족유대감	0.622	0.599	0.626	0.811	0.888

후 fornell-larcker criterion 지수를 점검하는데, fornell-larcker criterion 지수는 각 구성개념 AVE의 제곱근과 구성개념의 상관을 비교하는 것으로 다른 구성개념과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보다 높아야 한다(Hair, et al, 2017, pp. 115-116).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농촌체험 3개 개념과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 모두 타개념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정계수 R²은 구조모형 평가지표 중 예측정확성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내생잠재변수의 R² 지수가 .75 이상 높음, .50 이상 중간, .25 이하는 낮음으로 평가하는데(Hair, et al, 2017: 199), 이 연구에서 내생잠재변수인 자아존중감과 가족유대감은 각 .482, .658로 나타나 중간수준의 예측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잠재변수의 예측적합성이 확보되었을 때 구성개념의 예측적합성을 Q²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² 은 자아존중감 .348, 가족유대감 .479로 나타나 비교적 예측적합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과크기(f²)은 외생구성개념이 제거되었을 때 구성개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이다. 평가기준은 예측적합성(Q²)과 동일한데,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관계체험, 농촌문화체험, 일탈체험도 비교적 중간효과 이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내적일관성 평

가에서 가족유대감이 .95 이상의 수치를 보이며 신뢰도가 다소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에서 수용가능한 지표를 보이고 있어 이후 PLS-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모형 분석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LS-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가 모두 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4개 가설은 PLS-SEM 분석을 통해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결과는 <표 8>, <그림 2>와 같다. 농촌관광객의 농촌체험활동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₁, H₂, H₃ 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가족유대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₄가 지지되었다. 농촌관광객의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체험(H₃, β=.292, p=.001)은 농촌문화체험(H₁, β=.251, p=.025)과 일탈체험(H₂, β=.209, p=.030) 보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촌체험을 통한 자아존중감 형성은 농촌문화체험, 일탈체험 보다 관계체험이 보다 중요한 체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체험을 통해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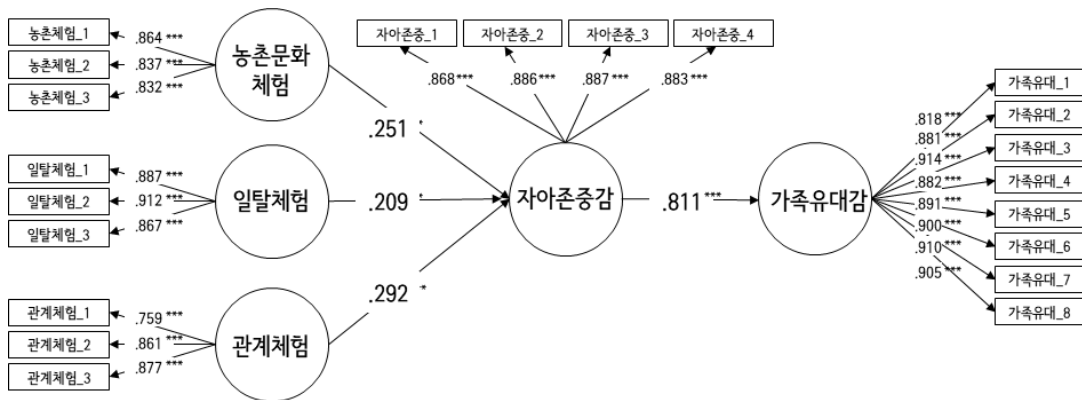
<표 7> 연구모형의 결정계수(R²), 예측적합성(Q²), 효과크기(f²) 결과

내생잠재변수	결정계수(R ²)	예측적합성(Q ²)	외생잠재변수	효과크기(f ²)
가족유대감	0.658	0.479	자아존중감	1.924
			관계체험	0.060
자아존중감	0.482	0.348	농촌문화체험	0.026
			일탈체험	0.025

〈표 8〉 연구모형 경로분석 결과

구분	경로계수	표준편차	T 값	VIF	편의수정신뢰구간 [2.5%, 97.5%]
농촌문화체험 → 자아존중감	0.251*	0.111	2.254	4.666	[0.027, 0.463]
일탈체험 → 자아존중감	0.209*	0.096	2.171	3.362	[0.020, 0.391]
관계체험 → 자아존중감	0.292**	0.087	3.361	2.747	[0.097, 0.450]
자아존중감 → 가족유대감	0.811***	0.027	30.260	1.000	[0.758, 0.861]

주 : ***p < 0.001, **p < 0.01, *p < 0.05



주 : ***p < 0.001, **p < 0.01, *p < 0.05

〈그림 2〉 PLS-SEM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가족유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beta = .811$ 로 나타났고, 매우 엄격하게 지지되고 있다($H_4, p=.000$). 따라서 가족유대감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농촌체험활동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

각되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김민정·장윤옥, 2008: 2). 가족은 사회적 관계형성의 시발점(始發點)으로 가족 구성원 간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은 사회적 관계형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어 부모, 자녀의 역할에 관계 없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최근 가족 내 불화, 갈등, 가정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 간 관계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농촌체험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의지와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간 인과관

계에서 농촌문화체험, 일탈체험, 관계체험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관계체험(H_3 , $\beta = .292$, $p = .001$)이 농촌문화체험(H_1 , $\beta = .251$, $p = .025$)과 일탈체험(H_2 , $\beta = .209$, $p = .030$)보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농촌체험활동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선행변수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체험활동이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보다 크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 유형 체험보다 농촌지역의 현지 주민, 동반 여행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류시영·강방훈(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논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관계체험이 류시영·강방훈(2012)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영향력의 크기($\beta = .295$, $p = .000$)도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류시영·강방훈(2012)의 연구에서 휴식적 만족은 이 연구의 일탈체험과 유사한 개념을 보이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비교적 정(+)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통한 안정된 심리상태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희경·김선희, 2015; 정지현·손정락, 2014)는 비교적 다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통해 기분전환, 심신회복 등 심리적 안정은 자아존중감 형성과 정(+)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농촌체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가족유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beta = .811$)은 농촌체험활동 세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욱 크

고, 매우 엄격하게($p = .000$)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가족유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강선경(2011)은 가족집단이 참여한 부모역할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통계청(2015)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관점에서 1주일간 30분 이상 자녀와 대화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7.2%(30분 미만 또는 해당없음 62.8%)에 불과했고, 자녀의 관점에서 1주일간 30분 이상 부모와 대화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3.4%(30분 미만 또는 해당없음 76.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유대가 향상된 원인은 가족집단이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계획-실행-참여 과정에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존과 상호작용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한 자신들의 경험이 자신감과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상호간 이해하는 자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갈등해결, 결속력,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강선경, 2011: p. 129).

이 연구는 다음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수요자의 관점에서 가족단위 농촌방문객은 농촌관광 체험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수준인 자아존중감과 대인적인 수준인 가족유대감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는 가족은 농촌관광 체험활동 통해 가족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공급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농촌체험마을은 체험활동을 통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은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고, 특히 마을에서 독특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핵심 상품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체험활동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홍보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농촌관광 체험객은 가족단위 방문객 비율이 높다는 점(유동숙·홍경완, 2017)을 감안한다면,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가족유대감 향상 효과는 농촌 체험마을의 홍보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겨울철에 한정해서(1월, 12월) 조사가 이루어졌다. 농촌관광 체험활동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체험활동에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성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외 대상지 선정과 겨울을 제외한 시기를 조사시점으로 선정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논의된다면 실무적, 이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선경(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109-136.
- 강성진·손호기(2015). 공정여행으로서 농촌관광 태도 및 만족과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30(5), 313-333.
- 강정원(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와 학습몰입 간의 관계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5), 151-164.
- 강하나·이진희(2016). 제주도의 농촌관광 이미지 유형별 선호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22(2), 141-152.
- 고동완(2009).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개발 모형. 『관광학연구』, 33(5), 411-431.
- 고동우(2009). 『여가학의 이해』. 서울: 세림출판.
- 고동우·이영숙·문상정(2012). 수학여행의 심리교육적 효과분석. 『관광연구』, 27(2), 1-20.
- 김계수(2014). 서비스 품질 측정과 경영성과에 대한 PLS 구조방정식모델분석: KNPS의 모형개발과 적용. 『고객만족경영연구』, 16(1), 23-41.
- 김명조(1990).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생활의 실천방안.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6, 55-68.
- 김민정·장윤옥(2008). 부모의 주 5일 근무 여부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유형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0.
- 김민지·남재철·이승우(2017). 지역 애착심과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연구: 제주도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1(3), 51-67. <http://dx.doi.org/10.17086/JTS.2017.41.3.51.67>
- 김상현·엄서호(2011). 농촌관광 체험활동이 서비스품질 만족과 농촌마을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5(3), 91-108.
- 김윤정·강현정(2014). 우울감과 자살위험간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도의 완충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3), 241-249.
- 김표민·김윤희(2013).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143-167.
- 류시영·강방훈(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아시아태평양 양캄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67, 27-50.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서울: 라인피아
- 박안숙(2017).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539-550.
- 박용순·고동완(2018).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관광학연구』, 42(3), 33-52. <http://dx.doi.org/10.17086/JTS.2018.42.3.33.52>
- 박정아·김병국(2017). 농촌관광 체험의 치유효과

-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1(2), 83-92.
- 서희정 · 김선희(2015). 사이코사이버네틱 모델에 근거한 집단미술심리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2), 21-40.
- 송완구 · 박정화 · 조용현(2011). 농촌관광 체험요인이 지속적인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5(5), 255-276.
- 수미마을(2018). 『2017 결산총회』
- 양길승(2014). 농촌관광의 서비스품질과 관광태도와 의 관계에서 지각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관광연구저널』, 28(5), 181-193.
- 양희원 · 강현욱 · 안동수(2011). 학업 성취, 심리사회적, 여가적 변인들이 미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1), 117-133.
- 양순미 ·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양옥경 · 김연수(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03-129.
- 양재혁 · 김경렬(2017). 중년층의 여가스포츠참여유형이 가족건강성 및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6(2), 393-405.
- 유동숙 · 홍경완(2017).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의 행동의도 연구. 『관광연구저널』, 31(3), 65-80.
- 유하나 · 한예을 · 오혜미 · 박미정(2015). 가족의사소통과 가족결속력이 노인여성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7(1), 469-483.
- 육슬기(2015). 『방문자 관계체험이 관광 후 평가에 미치는 영향: 관광농원 피싱파크 방문객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상훈 · 류시영(2016). 체류형 농촌방문객의 방문동기에 따른 숙박시설 선택속성과 체험활동 선호도 차이분석. 『관광학연구』, 40(10), 61-78. <http://dx.doi.org/10.17086/JTS.2016.40.10.61.78>
- 이성희(2016).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존중감, 신체존중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신체활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1(4), 97-117.
- 이신숙 · 차용은(2003). 기능손상노인의 우울감과 가족지지, 공적지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3), 165-180.
- 이지현 · 진수진 · 주현정 · 조연실(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이혜현 · 박덕병 · 이민수(2006). 농촌관광 방문객의 선호 체험프로그램 분석: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문화관광연구』, 8(1), 305-326.
- 이후석(2015). Pine과 Gilmore의 체험요소가 농촌관광객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3), 109-121.
- 임현정 · 김종민(2016). PLS-SEM을 적용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성취, 친구관계, 자아개념 및 행복감 간의 관계 탐색. 『교육심리연구』, 30(2), 447-468.
- 전지경 · 이경아 · 서인덕(2016). 제3문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8), 93-104.
- 정은성 · 강승희 · 진철웅(2016).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정치적 제어능력, 정책참여 관계, 공동체 의식의 영향관계. 『관광학연구』, 40(10), 137-157. <http://dx.doi.org/10.17086/JTS.2016.40.10.137.154>
- 정지현 · 손정탁(2014). 긍정 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99-117.
- 조록환 · 박장희(2007). 아동의 농촌체험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3), 1-21.
- 주영애 · 홍영운(2017). 여대생의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가족여가활동과 가족여가만족 및 여가

- 이득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634-647.
- 지명원 · 조태영(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여가 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6(6), 145-165.
- 최해용 · 윤유식 · 박재덕(2014). 6차 산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의 선택속성과 체험 프로그램 선호도가 농촌관광 행동의도 및 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8(2), 185-198.
- 한숙영 · 엄서호(2005). 유산관광지에서의 현장체험 속성에 관한 연구: 수원 화성행궁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0(2), 55-70.
- 함경애 · 이은혜 · 박명숙 · 천성문(2013). 교사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615-3631.
- 홍성화(2003). 가족단위 여가활동 참여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 57-71.
- Ali, F., Kim, W. G., Li, J., & Cobanoglu, C. (2017). A comparative study of covariance and partial least squares 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0(1), 416-435.
- Bacon, L. D. (1999, February). Using LISREL and PLS to measure customer satisfaction. *In Sawtooth Software Conference Proceedings, La Jolla, California, Feb* (pp. 2-5).
- Chen, G. M. (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 Hair Jr, J. F., Hult, G. T. M., Ringle, C.,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2nd. Sage Publications.
- Lee, V. H., Foo, A. T. L., Leong, L. Y., & Ooi, K. B. (2016). Can competitive advantage be achieved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A case study on SME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65, 136-151.
- Lee, J. W., & Kang, K. H. (2014).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of students according to school syste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5(4), 69-74.
- Reasoner, R. W., & Dusa, G. S. (1991). *Building self-esteem in the secondary schools: Teacher's manual and instructional material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osenberg, M.(196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florescence*. Orlando, FL: Academic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 Shary, J. M., & Iso-Ahola, S. E. (1989). Effects of a control-relevant intervention on nursing home residents' perceived competence and self-esteem.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23(1), 7-16.
- Soper, D. S. (2015). A-priori sample size calculator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ftware). *Recuperado em*, 12.
- Tiggemann, M., Winefield, W. R., & Goldney, R. D. (1993). *Growing up with un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ts psychological impact*. Taylor & Francis.
- Wold, H. (1974). Causal flows with latent variables: Partings of the ways in the light of NIPALS modeling. *European Economic Review*, 5, 67-86.
- Yoon, S. U., & Kwon, Y. S. (2015).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91-98.

2018년 3월 28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8년 8월 20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8년 8월 21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료